



# 매일 설레임 속 출전하는 '늦깎이 주전'

## KIA 타이거즈 차일목 포수

스포츠 포커스

“자꾸 이기고 싶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포수다” KIA 타이거즈의 포수 차일목(27)은 매경기 자신의 기록을 새로 써나가고 있다.

우리 히어로즈와의 경기가 펼쳐진 5월 9일, 차일목은 4회초 김수경을 상대로 12-1 팀의 대승을 이끄는 2점 홈런을 뽑아냈다. 차일목은 2003년 KIA 유니폼을 입고 프로무대에 첫 발을 내딛은 후 처음으로 두 손을 번쩍 들고 그라운드를 돌았다. 맞는 순간 홈런을 직감했다는 자신의 프로 데뷔 첫 홈런은 그렇게 6년 만에 터졌다.

지난 20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선 우익수 옆을 빠지는 안타로 3루를 밟으며, 6년째 비어있던 자신의 3루타 기록에 마침내 '1'이라는 숫자를 채웠다. 생각도 못해봤던 도루는 올 시즌 2개나 만들었다. 2003~2007년 시즌 통틀어 7점에 그쳤던 타점은 이미 두자리 수를 넘어섰다.

“안방마님” 본연의 임무에도 손색이 없다. 지난달 10일 주전 김상훈의 부상으로 마스크를 대신 쓰게 된 차일목은 한 달여 만에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선수로 자신의 입지를 굳혔다.

공·수의 눈부신 성장에 차일목의 이름 앞에는 ‘팔목상대’(肘目相對)라는 수식어가 이름처럼 따라 붙었다. 실재없는 혼련과 경기로 몸이 성한 곳이 없지만 차일목은 요즘 자신의 야구 인생에서 가장 신나는 시기를 살고 있다. 한편으로는 한달 여전 상상도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여러 동경하기도 하다.

“기회가 올 줄 몰랐는데 팀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만큼 신도 나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만큼 안돼서 짜증도 나고 나 때문에 팀이 지는 것 같다는 자책감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달력 주전 자리를 맡은 차일목은 팬들에게 욕도 많이 먹었다고 웃는다. 지금은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는 팬들의 사랑이 큰 힘이 된다.

팀의 5연승을 통해 부쩍 자신감을 얻었다는 차일목은 아직도 자신은 ‘성장중’이라고 말한다.

“경험이 쌓이면서 경기를 보는 눈도 넓어져 어디쯤에서 위기가 올지, 어떻게 경기가 전개 될지가 보입니다. 그래도 경기에 나설 때마다 내가 앞선 불행과 경기 운영의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차일목은 실수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점수를 주지 않기 위해 투수들과 많은 얘기를 나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마운드 위 투수가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투수가 마운드에서 가장 편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선수마다 성격도 틀리고,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게 다독이기도 하고 혼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어린 선수들이 많은 만큼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한 것 같고요.”

차일목은 이범석 선수에게 “잘 한다, 잘 한다” 했더니 역

효과가 나는 것 같아 요즘 혼을 많이 내고 있다고 웃었다. 첫 승을 거둔 후 이범석이 ‘이상하게 일목이 형의 리더가 좋았어요’라고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서도 차일목 선수는 특유의 미소로 대답했다.

“프로 데뷔 첫 승이라서 정신도 없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도 범석이의 프로 데뷔 첫 승 경기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었기에 기분 좋습니다. 마운드에 있는 선수가 믿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투수를 이끌어 주고 있다고 느낄 때 포수로서 보람이 있는 거죠.”

그동안 차일목은 ‘수비형 포수’로 통했다. 확실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백업 포수로 활동하면서도 수비만 잘해도 1군에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올 시즌을 앞두고 자신의 방향을 수정했다.

“저의 특성을 살려 잘하면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공격면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득점 찬스에서 타석에서 빠지게 되더라고요. 캠프에서 공격력 향상을 위해 엄청 노력했습니다.”

“포수 조련사”로 이름 난 조범현 감독의 부임도 또 다른 전환점이 됐다. “감독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힘들 거라고 걱정도 했지만 많이 배울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삼성 진갑용 선배도 많이 배우게 될 거라고

열심히 해보라고 격려 해 주셨고... 이래저래 올 시즌 저는 참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차일목은 우연히 야구를 시작했고, 또 우연한 계기로 포수가 됐다. 대구 부리초 5학년 때 학교 야구부가 부원이 없어 해체 위기에 놓이자 반 대항 야구대회가 열렸다.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차일목은 야구부원이 됐고 한 달 만에 정식 경기에 나가 타격 1위에 오르며 야구에 빠졌다.

이후 경운중 재학시절 팀 내 포수가 없어 고민하던 감독이 차분하고 미트질이 좋았던 차일목에게 ‘포수 체질’이라며 권유해 마스크를 썼다가 지금에 이르렀다.

대구상고를 거쳐 홍익대를 졸업한 차일목은 경상도 사나이. 홀로 타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전라도의 구수함이 좋다. “워낙에 이쪽 지역 분들이 친근감 있고, 잘 챙겨주시는 등 점이 많아요. 그래서 타지 생활을 힘들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15년이 넘게 미트를 든 차일목은 왼쪽 엄지 손가락이 꺾이지 않는다. 투수들이 던지는 공의 충격에 손가락이 굼어버려 홍익대 재학시절 군면제를 받았다. 그래도 현재의 자신을 있게 한 못생긴 왼손이 자랑스럽다.

“목표 같은 것을 세울 필요도 없었고, 세울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꾸 이기고 싶고, 점수를 안주고 싶고... 내일도 잘치고, 잘 뛰는데 저의 목표입니다. 계속 좋은 모습을 이어가려는 게 저의 꿈입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작은마님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함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b>개업·성업 안내</b>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	<b>여민락</b> 동구 운림동 중심사입구 전통찻집 대표 선정인 ☎(062)236-0337	<b>송광정(해물코다리)</b> 순천시 장전동 프리미엄급장연 골목 해물코다리,아구찜,해물탕,메밀명면 대표 한두금 ☎(061)743-0696	<b>용두보양탕</b> 북구 용두동 일신@102동앞 보양탕,양탕전문점 대표 박기홍 ☎(062)417-6933	<b>세주수학전문학원</b> 화정동 염주사거리 광운은행맞은편 초,중학생 수학 수강생수시모집 '원장님 1:1개인지도' ☎(062)385-0069	<b>송죽골쌈밥</b> 동구 광산동 인신B/D2주차장 옆 쌈밥전문점 주차장완비 대표 오정숙 ☎(062)222-7004	
<b>푸른건강원</b> 북구 풍향동 광주교대편 미트센터편 양파즙,배즙,포도즙,각종과일즙 최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062)512-2752	<b>노을길(도산점)</b> 광산구 도산동 구파랑세이식당 맞은편 퓨전요리전문점,동아리교처구이 비자상담 환영합니다. ☎(062)941-2345	<b>생태야 생태야</b> 북구 운림동 심호@정문앞 생태탕, 해물·아구찜 전문점 대표 박승규 ☎(062)511-0227	<b>꽃돼지</b> 북구 운암동 운암신일교회앞 메밀국수,메밀짜장,비빔국수,동부자전,그대곶이떡 대표 이영미 ☎(062)511-1866	<b>국제광택전문샵</b> 서구 풍림동 행정복지센터앞가게센터타이리 광택 코팅 부분도색 스티프세차 경보기 출장관리 ☎(062)655-9690	<b>명당공인중개사</b> 북구 문흥동 대주@앞 상가 주택 빌딩 경·공매 대표 정주경 ☎(062)261-4248	<b>별미국수전문점</b> 동구 공동 구동구청 후문 메밀국수,비빔국수,전치국수 대표 한신 ☎(010)6809-1988
<b>J조안성형외과</b> 동구 금남로3가 카톨릭센터 2층 J조안성형외과 전문병원 대표 조안영 ☎(062)225-0118-9	<b>느티나무</b> 동구 소태동 중심사입구 배고핀다리 옆 들깨콩나물해장국,주물럭,불백,생선잡살,추어탕 대표 김영자 ☎(062)224-0803	<b>영웅상사</b> 북구 중흥동 안보회관옆 저동채식·외인대리어음료,패션경기도호봉편 대표 오천덕 ☎(062)369-0787	<b>싸리골명석왕갈비</b> 북구 양산동 안디목교회옆 돼지갈비,생선잡살,생각창구이 계장+꽃게탕=6000원 ☎(062)571-0977	<b>부어치킨</b> 북구 양산동 현지에비빌앞 KFC에서 18년간 근무경력 맛있고저렴 대표 성종관 ☎(062)576-3339	<b>경원IT산업</b> 북구 우산동 우미프라자상가1층 102호 전기공사,통신공사,네트워크공사 전산소모품 A/S전문 ☎(062)261-4248	<b>예술뜨락</b> 동구 공동 금남맨션옆 차,음료,주류 대표 이영미 ☎(062)232-8881
<b>노을길(화정점)</b> 서구 화정동 미래도2병원미트센터골목 퓨전요리전문점,동아리교처구이 대표 이봉진 ☎(062)362-3456	<b>신명의자</b> 동구 학동 학운동사무소앞 일방도로 쇼파,의자,천강이및 수리전문 관공서,금융기관,의료기관 납품전문 ☎(062)234-8980	<b>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찜</b> 순천시 금당 조례동 순천 제일병원옆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 찜 전문점 ☎(061)725-6210	<b>한국주방</b> 북구 양산동 신흥택시옆 생크리,별미정리,모듬김,구기주,주만재,공정떡 대표 김영수 ☎(062)431-8040	<b>노바전자</b> 광산구 도천동 해남공단2번도로 주유소옆 각종비계이전,사고,광고업,그래프 A/S전문점 대표 마천석 ☎(062)954-9974~5	<b>사랑방떡전문점</b> 북구 두암동 시외버스터미널맞은편 행사떡,회개업,케익떡 각종떡주문판매 ☎(062)265-8585	<b>우리모임</b> 북구 운암동 운암신일교회옆 메밀국수,메밀짜장,비빔국수,동부자전,그대곶이떡 대표 이영미 ☎(062)511-1866